

大同譜序

根深근심이면 枝茂지무하고 源遠원원이면 流長유장은 物固물고然矣연의라 人亦인역如是여시라 先世선세의 積德적덕은 餘慶여경

이 後孫후손에 遠及원급矣의라 新羅景德王十四年신라경덕왕 唐國당국에서 吾南氏오남씨 始祖시조 英毅公영의공께서 新羅신라에

오신지 邇근씨 千有幾百餘年천유기백여년이라 新羅高麗時代신라고려시대에는 某姓모성을 莫論말론하고 修譜수보함이 없었

다 李朝이조時시부터 始有시유譜規보친함이라 그러므로 우리南氏남씨도 亦是역시 新羅신라로부터 高麗고려에 이르

기까지 幾百餘年間기백여년간은 文獻문헌이 無傳무전이라 往昔왕석 吾三貫譜오삼관보에 先代선대의 慨嘆개탄과 遺恨유한의 記기

錄록이 歷歷역역하다 그래서 後裔후예된者자 誰某수모를 莫論말론하고 感悌강제치 罔망우리 없다 世世세세簪組잠조連赫연력

하며 國內국내著姓저성이라 이는 祖先조신의 厚德후덕하신 遺澤유택이 길이 罔망우리 없다 그러나 三派삼파

가 千餘年천여년을 同譜동보치 不불함은 上系상계所錄소록이 不一불일함과 璿源선원譜보에 도 關係관계가 罔망지 罔망은 듯하다

그러므로 나의 拙劣졸열淺慮천려에도 是事사적蹟적을 詳考상고해 恒時항시 疑惑의혹에 罔망지 罔망은 이며

幾年間기년간 歲月세월을 浪費낭비한 적도 有유었다 그 擘뵈만 罔망지 公私공사에 事煩사번한 罔망은 宗親종친여러분

과 花樹화수叙情서정할 餘暇여가를 罔망지 莫무하였던 實情실정을 嗑터위 發발嘆탄함은 禁금할 수 罔망었다

多幸다행이 只今지금으로부터 二十餘年前여년전인 西紀서기 一九五四年년에 宜寧族丈의령족장 相喆상철氏씨가 當時당시大

宗會長종회장으로 被選피선되여 三貫大同譜刊行관대동보간행을 發論발론하고 發발起기委員위원과 더부러 國內국내散在산재諸宗제종에

계 大대宗會종회 日字일자를 回文회문하여 大會席上대회석상에서 滿場만장一致일치로 諸案제안을 議決의결同동時시에 三貫三公삼관삼공을

爲一世로 결정하다 大同譜가 始作되어 三年餘의 歲月이 흘러 二十二卷一帙로 完成되

니 譜册名曰 丁酉大同譜라 하다 그러나 三貫派譜에 準하여 三公以下로 修譜하고 始

祖英毅公以下 三公以上은 個字 翼字 傳疑하니 甚히 不安한마음 禁할수 없다 또한 始

祖公墓位 奉審은 斷行하여 國內裔孫들의 疑惑을 덜게 하였으니 이 또한 壯舉가 豈일수

없다 當時의 會長任의 熱誠과 實務諸位의 賢勞에 對하여 우리러 感謝함을 마지 않는다

相詰前任總裁께서 丁酉譜의 闕漏된바를 是正코자 大同譜 再刊을 始作한바 내가

責任이 무거운 後任總裁에 被任한지도 벌써 數年이 經過되었다 今番 大同譜를 刊行

함에 있어서도 上系의 確證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丁酉大同譜規대로 依舊修譜하노라

西紀一九七五年度에 大略集計된바에 依하면 우리宗族의 國內居住世帶數는 三萬七

千幾百戶이며 人員數는 十八萬七千 幾百名으로 推算된다 이번 大同譜에 國內居住

族親中에서도 漏單된 族親이 不少한듯하다 修譜는 同族間의 住所와 派別과 行列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親睦이 되는 것이니 二十萬族親은 앞으로 百倍더 敦睦愛族之誠을

같이 盟誓합시다 國有國史하고 家有族譜하니 族譜는 其家史이고 卽 春秋 世寶也라

그러나 國運의 不幸으로 南北이 分斷되어 北居同族과 合譜하지 못함이 恨스럽다

西紀一九七九年十一月

日

大同譜

丁酉大同譜舊序文

家之合_이爲族_고族之合_이爲國_다故_로導族者_는必明譜法_고御國者_는必揭憲章_고上下相維_고表裡相
涵然後_에治績_이始著_나然_나叔世_에理亂_이相踵_여王章_이幾於廢墜而士民_이能以禮義_로勉戒宗黨_여
捱過一世則譜義之及人_이殆浮於時憲_나譜_를豈可以輕視哉_아嗚呼_라庚戌以還_로東土黎生_이酷
值異類之箝制_여僂辱沓至_에至有塗改氏名於圖版_고繼以大戰_이禍_여燒機霆而瘳閃_고且也奔
竄_아于胡于越_에其局面之壞裂_과氣像之愁慘_이百倍於皇祖當時祿山之亂_나吾輩于此_에宜唱提
譜議_여譜生卒而慰存亡_고譜里居而視奠處_고譜塋墓而起愴感_고獎節義勉孝悌_고定祭儀立宗規
下大匡密直固城以上_에名諱世次_가各有異同_여譜議才發_에輒復淤塞_나比來_에諸宗賢_이喚起邦
族_여考究世乘_에叅誌碣而照帳籍_고掇疑存信_여締成三派同系之案_고打印於漢城之綬肆_나一編
之內_에上而肇祖_와下而三公_과繼而群裔_가次第羅列_여奉閣_나上_에不覺油然而有欣喜之像_나曩時諸
先輩綿世慨恨_이其亦有待於今日歟_아雖然_나宗議之合一_이固爲莫大之幸_요國論之不一_은實爲
莫大之憂_라今須與譜中人_로共立約束_여雲泥_가異所_고紈褐_이殊著而倫彝之思_가直透形器之外_여
窮之周也_에必急_고患之救也_에必力_고德之勗也_에必誠_여期以無愧古人_고尤以育教子姪_로爲務_여經
古緯今_에鑄成稀世之法器_여國家異時_에綴合分線之會_에英材之訪_이首及吾宗則人將曰東韓之
昇平_이造端於南族之修譜也_나諸公_은念哉_나今日合譜之役_에諸公_이不顧傍人之持難_고略加斟
裁於前案_여欲與邦內諸宗_로同其融和於百世之遠_나蓋譜爲有族之史而史有筆削之例故也_라
後之君子_는豈無叅量而恕貸者歟_아工既竣_에粗叙梗概_여著之于卷首_라

檀紀四二九〇年丁酉端陽節下泮 大同譜 編纂委員會謹序(後孫 軫永 撰)

譯 文

집들이 모여서 겨레가 되고 겨레들이 모여서 나라가 된다 그런 까닭에 겨레를 인도하

는 이는 반드시 보법(譜法)을 밝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반드시 헌장(憲章)을 세워서 상하(上下)가 서로 붙들고 표리(表裏)가 함양(涵養)한 뒤라야 치적(治績)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말세에 이르러서는 다스림과 어지러움이 서로 있다 라 일어나서 왕자(王者)의 법이 거의 폐하여 없어지게 되니 사민(士民)이 능히 예 의로써 종족(宗族)의 무리를 권면(勸勉)하고 경계하여 한세상을 이끌고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족보의 도리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거의 당시의 헌장(憲章)보다도 우 승(優勝)한데가 있다 족보를 어찌 가볍게 여길수 있겠는가 슬프다 경술국치(庚戌 國耻) 이래로 우리나라의 생민들은 참혹하게 이민족(異民族)의 압박을 당하여 살 육(殺戮)과 치욕(耻辱)이 겹쳐 몰여들어 심지어 도적(圖籍)에 성명까지 묻혀지고 고쳐지게 되었으며 이어 전화(戰禍)가 일어나 폭격에 불타고 총칼에 다치고 또는 먼 곳으로 달아나 숨곤하였으니 그 국면(局面)의 파탄(破綻)과 기상의 근심되고 참담함이 옛날 당나라 명황(明皇) 때의 안록산(安祿山)의 난리보다 백배나 더하다

우리들은 이에 마땅히 대동보(大同譜)의 논의(論議)를 제기하여 생(生)졸(卒)을 보첩에 기록하여 생존자와 사망자를 위로하고 이동(里洞)을 기록하여 사는 곳을 살 피며 선영(先塋)과 분묘를 기록하여 슬퍼하는 감회를 일으키게 하고 절의를 권장 하며 효제(孝悌)를 권면하고 제사의 예의(禮儀)를 정하며 종중(宗中)의 규범(規範)을 세워서 전일(前日)의 오점(汚玷)과 구욕(垢辱)을 씻고 후생(後生)의 새국면을 개척하여 나라안에 모범이 되어야 하겠다

돌아보건대 英陽 宜寧 固城의 세파는 다 같이 영의공(英毅公)을 시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영의공이하 대광공(大匡公) 밀직공(密直公) 고성군(固城君) 이상은 명회(名諱)와 세대의 차례가 각기 다른 것과 같은 것이 있어서 대동보의 의논이 일어났다 문득 다시 막혀버리곤 하더니 근자에 종중의 여러인사가 나라안의 종족(宗族)들을

불려일으켜 세승(世乘)을 깊이 구명하고 지갈(誌碣)을 참고하며 장적(帳籍)을 대조
 하여 의심되는 것은 버리고 믿어온 것은 존치(存置)하여 세계(世系)의 안을 작성하
 고 한성(漢城)의 인쇄소에서 찍어내었다. 한책에 위로는 시조(始祖)와 아래로는 삼
 공(三公)과 이어서 여러 후예들이 차례로 나열(羅列)되었다. 책상위에 받들어 올려
 놓으니 기쁨을 느끼는 기상이 왕성히 일어나는 것을 자신도 깨닫지 못한다. 지난 때
 에 여러 선배들의 대대로 이어진 슬픔과 한이 그 또한 오늘을 기대함에 있었던 것일
 까 비록 그러하나 종중의 의논이 하나로 합친 것은 진실로 막대(莫大)한 다행이지
 만 국가의 여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것은 실로 막대한 근심이다. 그러나 이제 모름
 지기 족보속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약속을 세워서 높고 낮은 것이 지위를 달리하
 고 비단옷과 베옷이 위치(位次)가 다를지라도 인륜의 떳떳한 도리에 대한 생각이 바
 로 형기(形器)의 밖에 통하게 하여 빈궁을 구조하는 일은 반드시 급히 하고 환란을 건
 지는 일은 반드시 힘쓰며 덕을 힘쓰는 일은 반드시 성심으로 하여 옛사람에게 부끄
 러움이 없게 하고 더욱 자질들의 교육에 힘써서 옛것을 날(經)하고 지금것을 씨(緯)
 로 하여 세상에 드물게 보는 인재(人才)를 만들어 내었다. 다른 날 국가가 분산된
 선(線)을 엮어 모으듯 흠어진 인재들을 찾아 모을 때에 뛰어난 인재들을 제일 먼저 우
 리 종중에서 찾게 한다면 남들이 장차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승평(昇平)은 南氏들
 의 족보다운 일에서 단서를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여러 분께서는 생각할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동보의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결의 사림들의 어렵게 여기는 것
 을 돌아보지 않고 전안(前案)에 약간의 참작 재량을 가하여 나라안의 여러 종씨들과
 더부러 백세의 멀기까지 융화를 같이 하고자 하였으니 대개 족보라는 것은 겨레의
 사기(史記)인데 사기에는 가필(加筆)과 삭제가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뒷날의 군자(君
 子)들이 어찌 이 사정을 참량하여 관용(寬容)함이 없겠는가. 공역은 이미 마치고

南氏大同譜卷之一

로) 대략(大畧)의 경과를 작호는 책의 뒷편에 등장시키나

단기 4190년 경에 유정인 하수가

포병이 포병의 수를 가리키는 수를

(이-수) (이-수) (이-수)

上系世代圖

始祖
英毅公
南敏

一世
後孫 洪輔
重 大 匠

二世
主簿 謙
同簿 正

三世
及第 淑孫
禮賓寺卿

四世
及第 子之卓

五世
禮賓卿 子 奕
檢 賓 枝

六世
令慶 殿 事 子承敬
子元漢
子惟漢

七世
進士 子顥
子得貴
子仲龍

八世
振武公派 子啓文
子順
子達

後孫 君甫
直副使

衛尉丞 子公若
同 正

及第 子備
大紫光祿 夫

典兵判書 子星老

判圖判書 子有孫
進士 子三起

典理判書 子暉珠

戶曹參判 子敏生

府使公派 子富良
中領公派 子遂良
修義公派 子義良
會寧公派 子佑良
萬戶公派 子普良

進士 子有智

文縣監 子鳳羽

判書 子得温
兵馬節度使 子得良

判書 子禧
孝子公派 水使公派

見下

四三面

見下

三五

益加 天朱 心蕃

進士 子三起

判事 子承顧

軍器正 子永蕃
中郎將

縣監公派 子頤
攀松公派 子領
松亭公派 子須

見下

二〇面
二一面
二二面
二二面

中郎將公派

禮賓卿 子 奕

令慶 殿 事 子承敬

進士 子顥

振武公派 子啓文
子順
子達

見下

一九面
二〇面
二〇面

錄事公派

判事 子承顧

軍器正 子永蕃
中郎將

縣監公派 子頤
攀松公派 子領
松亭公派 子須

見下

二〇面
二一面
二二面
二二面

中郎將公派

跋文

정유대동보 오삼관남씨 유사이래 일대장거사 하겠다 그러나 처음으로 試

圖된 이譜는 當時가 國內混亂期 이였으니만큼 諸宗族에 널리 周知가 못되어 漏單도

많았고 入單된 것도 派系가 分明치않은 等等으로 因하여 完壁을 期치 못하고 誤謬와

粗漏된 바가 없지 않았음은 事實이다 이러한 點을 勘案하여 前任總裁相喆氏가 이를

補完是正하고 宗族이 無漏納單하여 完全無缺한 第二의 大同譜發刊을 劃策하였다

이 뜻을 받아 그 뒤를 이은 關係任員들은 各種隘路를 打開하며 誠心努力으로 大同譜

編纂의 役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回顧함에 今譜亦 期待外로 漏單이 많았고 또 一部

宗人의 意思疏通이 되지않는 不和音도 있어서 大成合譜도 이루지 못하고 또한 時日

이 豫想外로 遷延되어 遺憾스러운 마음 禁할 길이 없다 그러나 編纂從事任員들은 그

內容에 있어서 最善의 完壁을 期하였다고 하겠으나 어찌 허물이 없으리요 僉宗의

恕諒을 바라는 바이다 다만 同一始祖라 하지만 三貫氏族의 再次의 合譜는 他에 보

기 드문 舉事이고 우리 血統의 融和와 團結性을 誇示한 바라고 自負할 수 있다

今譜의 未備不完點은 新進後裔들의 앞날에 期待하는 바이며 끝으로 後裔들의 崇先

愛族의 觀念을 涵養하고 加一層의 奮發과 努力으로 國內 最優越한 氏族이 되고 無

南氏大同譜卷之一

附錄

窮^궁한 榮^영華^화가 氣^기를 氣^기를 巴^바라^라는 末^말음 懇^간切^절하다

西紀一九七九年六月 日

大同譜編纂委員會

委員長

柄國 識